

PREVIEW

제7회 PT & Critic 변상환 개인전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
Byun Sang-hwan solo exhibition <Pure, solid courage>

전시기간 | 2016. 2. 17 수 - 2016. 3. 8 화
오프닝 리셉션 | 2016. 2. 17 수 18시
PT & Critic | 2016. 3. 6 일 16시 (패널: 권오상, 이정형)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2016년도 첫 PT & Critic 참여 작가로서 변상환 작가의 전시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 Pure, solid courage>를 소개한다. 변상환 작가는 전통적 도상, 오래된 물건, 익숙한 사물, 돌덩이 등 도시에서 자신과 관계 맺은 대상들을 찾아내고 변형하는 과정을 단단한 조각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을 작가만의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오브제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조크 같은 작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주변의 사소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작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가볍고 유티있게 풀어낸 작품들 사이에서 관객들은 한국의 '키치' 함을 마주하게 된다.

한국을 두고 도시 전체가 너무 무채색이다 말하지만 그 '무-채'에는 분명 갈색과 초록색이 있다. 너무 지배적인 색이어서 '무-채'로 인식할 뿐, 적벽 돌로 지은 주택, 적벽 돌로 쌓은 담 길을 걸으면서 갈색을 인지하며 걷진 않는다. ... 그것이 외부의 시선을 통해 '일화'로 들었을 때 이 기이한 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키치' 다.

- 작가 노트 中 -

© 인터뷰

Q. 전시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용기'는 bowl이 아니라 courage의 뜻입니다. 단단하고(stiff) 청결한(pure) 용기(courage)이죠.

Q. 유리병이나 돌의 형태를 하고 있는 녹색의 오브제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망막에 슬쩍 맺히고 이내 지워지는 것들을 지목하고 인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 옥상에 올라 다른 집 옥상들을 내려다보면서 한 말, "한국 사람들 참 낭만적"이라고, "다들 옥상에 잔디를 심어놓았다."

Q. 작가님의 작업들을 살펴보면 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도 역시 돌들이 등장하는데, 과거 작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애초 이 초록색 조각들은 시리즈로 할 만큼 거창한 구상은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툭툭 던지는 조크 같은 단발성 작업이었죠. 만들고 보니 고놈 참 재밌더군요. 이것만 가지고 전시도 가능할 거 같았어요. 양이 많아지고 크게 만들고, 좀 더 다른 상상을 하다 보니 연장선상이었습니다.

Q. 전과 비교하여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좀 더 가볍고 유티 있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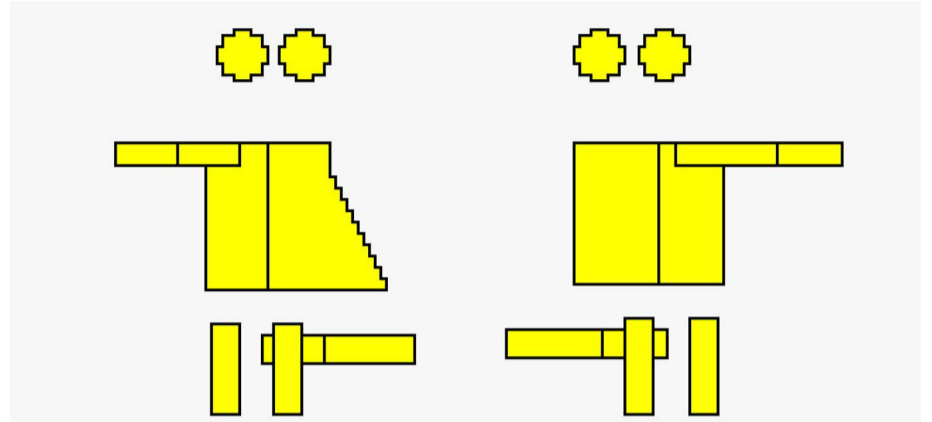
A. 작업을 할 때 항상 유티를 고려합니다. 다만 이번 작업이 전작에 비해 물리적으로 가볍고 색쉬한 색깔 덕에 더 유티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Q. 이번 전시는 '조각'이라는 장르가 부각되어 보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특정 장르 혹은 매체에 대한 의도가 있으셨나요?

A. 이사한 윌링앤딜링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계단을 오르면서 전체 공간의 시점을 확보해감이 재미있었습니다. 올라다보다가 바닥과 수평이 되고 어느 순간 공간 안에 들어와 있게 되죠. '조각을 위한 공간이다'라 생각했습니다.

홍승혜 개인전 <나의 개러지 밴드>
Hong Seunghye solo exhibition <My Garage Band>

전시기간 | 2016. 3. 18 금 - 2016. 4. 6 수
오프닝 리셉션 | 2016. 3. 18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추후 공지



© 전시소개

3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능숙하게 다루며 회화, 미디어, 조각, 사운드 등 여러 장르를 복합적으로 제시해 오는 홍승혜 작가를 초대하였다. 기성 작가의 실험성을 요구하는 이 공간에서 홍승혜 작가는 '아마추어쉽'을 이야기한다. 이제는 프로페셔널하다고 여겨지는 작가가기에 발언할 수 있는 이러한 이슈에 귀기울여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 보여지는 '나의 개러지 밴드'의 영상 쇼는 순수한 열정과 두려움 없는 아마추어 정신의 추구이자 이를 가능하게 한 오늘날 기계문명에 대한 예찬이다. 나아가 자연 파괴적 기계문명으로 대변되는 현대문명의 흐름을 나름의 방식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이다.

'나의 개러지 밴드'의 멤버들은 자신의 몸과 머리, 팔과 다리를 악기 삼아 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춤추고 연주한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감각적 소리와 움직임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어떠한 심미적 울림을 자아낼지 지켜보고 싶다.

- 작가 노트 中 -

© 인터뷰

Q. 이번 전시 <나의 개러지 밴드(My Garage Band)>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개러지 밴드'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모임을 뜻하며, 주로 차고와 같은 허름한 공간에서 연습하다보니 붙여진 이름이죠. <나의 개러지 밴드>는 포토샵에서 만든 인물 픽토그램으로 결성한 아마추어 밴드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들의 뮤직 비디오 콘서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한 애플의 소프트웨어 '개러지밴드(Garage-Band)'에서 영감을 받아 밴드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Q. <나의 개러지 밴드>는 조형적 질서를 음악적 질서에 연계하는 직접적인 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A. 모든 창작활동은 결국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질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가치관'이란 말로 대신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작업을 통해 행해온 수많은 선택들과 발언들에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이 저의 질서라 말할 수 있겠죠. 조형적 표현이건 음악적 표현이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악보가 그리드로 되어 있다 보니 음악작업도 기하학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Q. 작가님의 작품은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작품을 보면 오히려 단순하고 어눌하게 표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 테크놀로지는 흔히 복잡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르죠. 작업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복잡함과 날카로움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가 오히려 단순하고 어눌한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Q. 이번 전시에 보여지는 '나의 개러지 밴드'의 영상 쇼는 순수한 열정과 두려움 없는 아마추어 정신의 추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추어 정신'에 대한 작가님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요?

A. 미술을 오래 했지만 음악은 처음 만들어봅니다. 음악을 즐기고 취미 이상의 애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작곡은 초보죠. 편리하게 고안된 새로운 도구에 기대어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마추어로서의 나 자신을 회복하고 실험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직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무모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정을 즐기고, 작업하는 순간 이미 보상을 받는 것이죠. 진정한 아마추어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하게 만드는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REVIEW with PHOTOS |

PT & Critic - 2013 Reunion
구민정, 김영민, 노은주, 한성우
2015. 12. 22 화 - 2016. 1. 17 일



개인적으로 누구의 개인전 보다 누구누구의 단체전을 더 기대하며 관람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생각과 여러 요소가 모여 있을 때 나를 자극해 줄 무언가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시각을 자극할 회화 전시지만 감상하는 동안 오감 중 나머지 사감도 느낄 수 있었다.

구민정 작가가 공간에서 보여준 입체적인 회화 방식을 '자신의 입맛대로'의 작업이라고 표현한다면 나에게 그 맛은 '예쁜 맛'이었다.

생산된 건지 넘치지 버려진 건지 생각하는 동안 김영민 작가가 고뇌하며 끄적였을 '스스스' 펜 소리와 이미지를 프린팅하는 '드르드르' 기계음이 들리는 듯 하다.

노은주 작가가 그린 사물들의 자태는 누군가가 집어주길 바라는 모양이었다. 걸쳐지고 뺄어지진, 때로는 위태롭기도 했다. 인지하고 있는 사물들이라 그 촉감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내 손에 석고가루가 묻을 것 같았다.

한성우 작가의 작품을 보면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 작품의 질감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접근하였고 몸에서 가장 앞서 있는 코가 빠르게 오일향을 전달 받았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1 | 라운드 테이블, 2016년 1월 9일
2 | 전시장 전경

이세준 개인전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
Lee Sejun solo exhibition <What will it burn?>
2015. 11. 26 목 - 2015. 12. 16 수



'바글바글'
_ 잔거품이 넓게 퍼지며 많이 일어나는 소리 또는 모양'

이세준 작가의 작업을 처음 보았을 때 탁 떠오른 단어이다. 화면 전체에 의자, 컴퓨터, 도라에몽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동시에 밀도 높게 표현되어 있고 내장처럼 흐느적거리는 물체와 붓질이 특징적이다. 소재들의 관계는 파편적이지만 내장같은 물체로 인해 자연스럽게 묶여지고 다변적 공간의 에피소드를 생성해낸다. 고채도 색상, 흘러내리는 질감 표현 방식에 거대한 캔버스의 사선 배치는 대상들이 쏟아져내리는 기분을 극대화시킨다. (글. 이경아 인턴)

1 | 오프닝 리셉션, 11월 26일
2 | 전시장 전경
3 | 아티스트 토크, 12월 12일



| 선물이 예술이네요 를 소개합니다. |

<선물이 예술이네요>코너는 2012년도에 진행했던 전시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작가 및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내는 흔치 않은 독특한 아이템들을 가족, 친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장만해볼 수 있는 조그만 선물가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 더 많은 아이템과 자세한 정보는 윌링앤딜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행운을 불러오는 수제 천연 가죽 아기신발입니다. 아기 이름 이니셜도 새겨드려요. (크노프 Knopf)



다소 이상한 얼굴이 그려진 수제 화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이템을 선물해 보세요. 화분의 물은 한달에 한번만! (오드미 Oddmie)



어릴때 도장 장인에게서 전수받은 도장파기 선공을 구사합니다. 옛 한문제를 비롯, 한글버전 주문도 가능! (신평)

전국 곳곳에서 골라온 돌맹이가 멋스러운 브로치로 변신했어요. 독특한 패턴 포인트가 되준답니다. (셀위댄스)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김다움 작가는 북한남갤러리에서의 <반복> 단체전에 참여합니다. 2015.12.26~2016.1.2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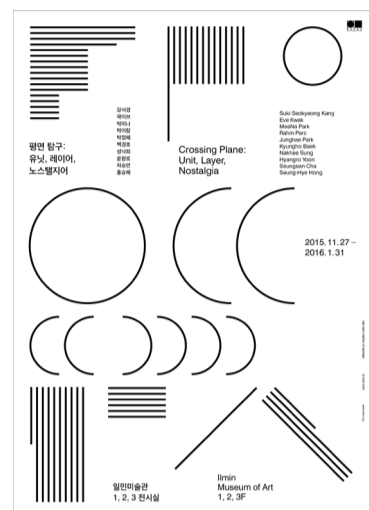
이정형, 이세준(콜레라마), 변상환 작가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2016 SeMA Blue <서울 바벨>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서소문본관 1층 전시장에 4.5 까지.

신기운 작가가 갤러리퍼플에서 조셉 바레쉬 작가와 <Passing Landscape Lasting Sights> 2인전에 참여합니다. 1.30 ~ 3.6 까지.

박선민 작가가 소록도 작은미술관 개관 전시에 2015.10.20 ~ 12.31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손동현 작가가 제15회 송은미술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진:NEWSIS)



백경호, 홍승혜 작가가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평면따구 : 유닛, 레이어, 노스텔지어> 단체전에 참여하였습니다.

| W&D NEWS |

김인선 디렉터는 짧은 헤어스타일로 변화를 주었고 머지 않아 한 번 더 짧게하였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박윤삼 코디네이터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하였다. '하지만 피규어가 있어 괜찮아.' 라고 말했다... 주위의 더 큰 우려를 자아냈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다니엘 헤니가 'Are you gentle?' 로 선전한 대우시절의 젠트라 중고차를 구매하였다. 주변 지인들에게서 그 차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였다.

김세훈 전인턴은 -一心재단에 취직하였고, 사무업무부터 경비업무까지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경아 인턴은 2월 22일 모여대를 졸업하고 기나긴 솔로 생활에도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일본 전통 인형st에서 심은하st로 변신을 꾀하였다.



Before / After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박윤삼, 이경아, 한황수
감 수: 김인선
발행일: 2015년 3월 16일